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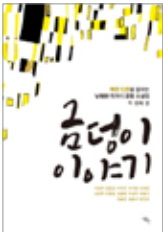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첫 번째 권

국경을 넘는 그림자

아픔이 있는 곳에 작가는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공동 소설집은 발행되었다. 남북한 작가가 같은 자리에서 북한에서와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에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나 북한이라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윤후명, 윤양길, 이청해, 이지명, 이평재, 도명학, 이성아, 설송아, 정길연, 김정애, 방민호, 이은철, 신주희
신국판 | 404쪽 | 값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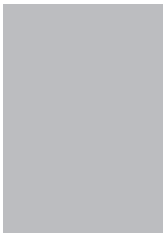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두 번째 권

금덩이 이야기

북한에서 고난을 겪다 남쪽으로 와 소설의 형식으로 떠난 땅의 기억을 증언하고 있는 귀한 작가들, 그리고 북의 일이 북의 일이 아니요 남의 일이자 세계 전체의 일임을 의식하고 있는 남쪽 태생의 작가들, 이 양쪽의 작가들이 하나 된 염원으로 이 책을 엮었다.

이경자, 윤양길, 박덕규, 이지명, 이대환, 도명학, 유영갑, 김정애, 이성아, 박문안, 정길연, 설송아, 방민호
신국판 | 420쪽 | 값 15,000원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세 번째 권

꼬리 없는 소

0000
00000
00000

이정, 이지명, 유영갑, 도명학, 이성아, 김정애, 정길연, 설송아, 방민호, 박주희
신국판 | 335쪽 | 값 15,000원

이로써 소설은 북한사회의 경직된 체제가 고수하는 위계적 질서의 그 구체적인 면면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며 느끼는 일상적 감정들을 나누어주기에 보다 생생한 이해에 다가간다. 소설들은 장마당을 둘러싼 북한 주민들의 역동성과 좌절들, 그로부터 멀리 탈주해 남한의 ‘하나원’으로 향하는 역경과 소망들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그간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이웃으로 사는 탈북민들을 어떻게 응시하고 내부적 위계를 다시 만들고 있는지를 되묻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 것이다.

—김건형, 해설 〈월경(越境)의 위계와 그 재현들의 뒀〉 중에서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네 번째 권

다국령 이야기

이정 장해성 이성아 이지명
정길연 도명학 방민호 김정애
신주희 설송아 금희

예
옥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네 번째 권

다국령 이야기

이정 장해성 이성아 이지명 정길연
도명학 방민호 김정애 신주희 설송아 금희

예
옥

지은이 이정
장해성
이성아
이지명
정길연
도명학
방민호
김정애
신주희
설송아
금희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첫 번째 권

국경을 넘는 그림자

아픔이 있는 곳에 작가는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공동 소설집은 발행되었다. 남북한 작가가 같은 자리에서 북한에서와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에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나 북한이라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윤후명, 윤양길, 이청해, 이지명, 이평재, 도명학, 이성아, 설송아, 정길연, 김정애, 방민호, 이은철, 신주희
신국판 | 404쪽 | 값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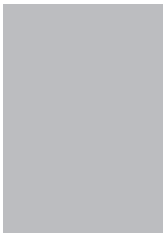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두 번째 권

금덩이 이야기

북한에서 고난을 겪다 남쪽으로 와 소설의 형식으로 떠난 땅의 기억을 증언하고 있는 귀한 작가들, 그리고 북의 일이 북의 일이 아니요 남의 일이자 세계 전체의 일임을 의식하고 있는 남쪽 태생의 작가들, 이 양쪽의 작가들이 하나 된 염원으로 이 책을 엮었다.

이경자, 윤양길, 박덕규, 이지명, 이대환, 도명학, 유영갑, 김정애, 이성아, 박문안, 정길연, 설송아, 방민호
신국판 | 420쪽 | 값 15,000원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세 번째 권

꼬리 없는 소

0000
00000
00000

이정, 이지명, 유영갑, 도명학, 이성아, 김정애, 정길연, 설송아, 방민호, 박주희
신국판 | 335쪽 | 값 15,000원

이로써 소설은 북한사회의 경직된 체제가 고수하는 위계적 질서의 그 구체적인 면면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며 느끼는 일상적 감정들을 나누어주기에 보다 생생한 이해에 다가간다. 소설들은 장마당을 둘러싼 북한 주민들의 역동성과 좌절들, 그로부터 멀리 탈주해 남한의 ‘하나원’으로 향하는 역경과 소망들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그간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이웃으로 사는 탈북민들을 어떻게 응시하고 내부적 위계를 다시 만들고 있는지를 되묻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 것이다.

—김건형, 해설 〈월경(越境)의 위계와 그 재현들의 몫〉 중에서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네 번째 권

다구르 이야기

이정 장해성 이성아 이지명
정길연 도명학 방민호 김정애
신주희 설송아 금희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네 번째 권

다구르 이야기

이정 장해성 이성아 이지명
정길연 도명학 방민호 김정애
신주희 설송아 금희

지은이 이정
장해성
이성아
이지명
정길연
도명학
방민호
김정애
신주희
설송아
금희

예
우

예
우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첫 번째 권

국경을 넘는 그림자

아픔이 있는 곳에 작가는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공동 소설집은 발행되었다. 남북한 작가가 같은 자리에서 북한에서와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에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나 북한이라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윤후명, 윤양길, 이청해, 이지명, 이평재, 도명학, 이성아, 설송아, 정길연, 김정애, 방민호, 이은철, 신주희
신국판 | 404쪽 | 값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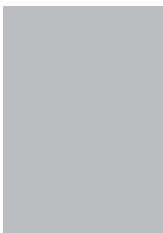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두 번째 권

금덩이 이야기

북한에서 고난을 겪다 남쪽으로 와 소설의 형식으로 떠난 땅의 기억을 증언하고 있는 귀한 작가들, 그리고 북의 일이 북의 일이 아니요 남의 일이자 세계 전체의 일임을 의식하고 있는 남쪽 태생의 작가들, 이 양쪽의 작가들이 하나 된 염원으로 이 책을 엮었다.

이경자, 윤양길, 박덕규, 이지명, 이대환, 도명학, 유영갑, 김정애, 이성아, 박문안, 정길연, 설송아, 방민호
신국판 | 420쪽 | 값 15,000원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세 번째 권

꼬리 없는 소

0000
00000
00000

이정, 이지명, 유영갑, 도명학, 이성아, 김정애, 정길연, 설송아, 방민호, 박주희
신국판 | 335쪽 | 값 15,000원

이로써 소설은 북한사회의 경직된 체제가 고수하는 위계적 질서의 그 구체적인 면면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며 느끼는 일상적 감정들을 나누어주기에 보다 생생한 이해에 다가간다. 소설들은 장마당을 둘러싼 북한 주민들의 역동성과 좌절들, 그로부터 멀리 탈주해 남한의 ‘하나원’으로 향하는 역경과 소망들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그간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이웃으로 사는 탈북민들을 어떻게 응시하고 내부적 위계를 다시 만들고 있는지를 되묻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 것이다.

—김건형, 해설 〈월경(越境)의 위계와 그 재현들의 뒀〉 중에서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네 번째 권

다구르 이야기

이정 장해성 이성아 이지명
정길연 도명학 방민호 김정애
신주희 설송아 금희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네 번째 권

다구르 이야기

이정 장해성 이성아 이지명
정길연 도명학 방민호 김정애
신주희 설송아 금희

지은이 이정
장해성
이성아
이지명
정길연
도명학
방민호
김정애
신주희
설송아
금희

예
문
출
판
사

예
문
출
판
사